

## 최근 중국 3대 도시의 소비성향 변화

### 1. 개요

- 2007년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중국내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.
  - 특히 육류, 가금류, 식용유 가격 상승으로 일반 소비자의 생계비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.
- 중국 현대국제시장연구회사(MIMR, 现代国际市场研究公司)는 2005년 이후 연속 3년간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 3대 도시 가계의 소비성향 변화를 조사·발표함.
  - 본 조사는 2007년 말 3대 도시 주민 923명을 대상으로 소비지출에 대해 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음.

### 2. 중국 3대 도시 소비성향

#### 가. 식료품에 대한 지출 급증

-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7년 중국 3대 도시 가계의 월 지출은 주로 식료품, 교육문화오락

및 관련서비스, 교통 및 통신 등에 집중됨.

- 3대 도시 가계의 월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응답자의 76%가 식료품을, 52%가 교육문화오락, 41%가 교통 및 통신을 선택함.

· 2007년 식료품 관련 지출의 응답 비율은 2006년 대비 25% 포인트, 2005년 대비 22% 포인트 상승한 반면, 교통 및 통신, 교육문화오락 및 관련서비스의 비중은 2006년 대비 각각 17% 포인트, 1% 포인트 하락

<표1> 2005~2007년 중국 3대 도시 가계의 주요 지출에 대한 응답자 비율(3개 항목 복수응답 가능)

소비성 지출 항목	2005년 합계(%)	2006년 합계(%)	2007년 합계(%)	2006년 대비 (% 포인트)	2005년 대비 (% 포인트)
식료품	54	51	76	25	22
교육문화오락 및 관련서비스	61	53	52	-1	-9
교통 및 통신	38	58	41	-17	3
보건의료	26	32	35	3	9
의류	29	31	32	1	3
주거	37	45	30	-15	-7
가정내 설비 및 관련서비스	29	20	18	-2	-11
잡화 및 관련서비스	9	9	9	0	0

□ 식료품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.

- 2007년 이후 곡물, 식용유, 육류 등 일반 시민들의 필수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매월 각 가계의 소비성 지출 중 식료품 관련 지출의 비중이 높아짐.

- 또한 중국 소비재 시장의 발전, 소비환경의 개선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영양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었고, 고품질 건강식품을 추구함에 따라 식료품 관련 소비가 구조적으로 증가함.

- 휴대폰, 컴퓨터 등의 통신기구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관련 통신사용료가 하락하게 되어 가계소비

에서 교통 및 통신 관련 지출이 감소함.

- 물가상승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대한 소비가 어느 정도 억제된 것으로 보임).

#### 나. 3대 도시의 소비구조 차이

□ 광저우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비해 주거 관련 지출이 높고 의류 관련 지출이 낮은 반면, 베이징과 상하이는 교육문화오락에 대한 지출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광저우 지역의 주거 관련 소비지출<sup>2)</sup>은 51%로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였는데, 이는 상하이와 베이징보다 각각 32% 포인트, 31%포인트 높은 수치이며, 광저우 지역의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영하는 것임.

- 이에 반해, 광저우 지역의 교육문화오락 및 관련서비스와 교통 및 통신 지출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함.

- 또한 광저우 지역의 의류 관련 지출은 상하이와 베이징보다 각각 19% 포인트, 15% 포인트 낮음.

□ 상하이와 베이징 지역의 교육문화오락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율은 모두 2위로 광저우보다 각각 16% 포인트, 12% 포인트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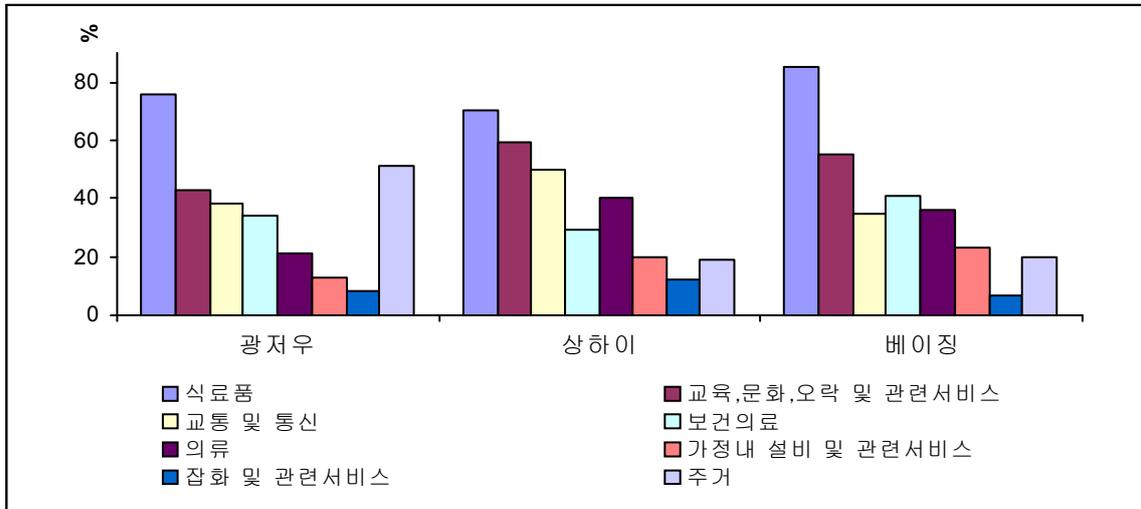
- 이는 베이징, 상하이 지역의 여가 관련 소비지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.

---

1) 전체 응답자의 56%가 물가상승이 생활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커 불필요한 소비를 가급적 줄일 것이라고 답함.

2) 주거 관련 지출은 집세, 수도세, 전기세, 가스비 등으로 주택구매 비용은 불포함.

<그림 1> 2007년 중국 3대 도시의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비율



□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% 이상이 최근 물가상승을 절감한다고 답변하였으며, 그 중 68%는 “비교적 많이 올랐다”, 26%는 “아주 많이 올랐다”라고 응답

- 3대 도시지역을 비교해 보면 광저우 시민의 물가상승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아 “아주 많이 올랐다”라고 느끼는 시민이 34%에 달함.

· 이는 베이징과 상하이보다 각각 6% 포인트, 18% 포인트 높은 수치임.

- 반면 베이징과 상하이 시민은 물가상승에 대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, “좀 많이 올랐지만 견딜만 하다”라고 답한 시민이 각각 70%와 81%에 달함.

- 물가상승에 대한 3대 도시 주민의 공통된 대응조치는 불필요한 지출은 가급적 줄이겠다는 것이었으나, 상하이와 베이징의 경우 “물가상승의 영향이 크지 않아 소비할 곳에는 소비하겠다”라는 시민이 각각 42%와 37%에 달해 광저우(14%)보다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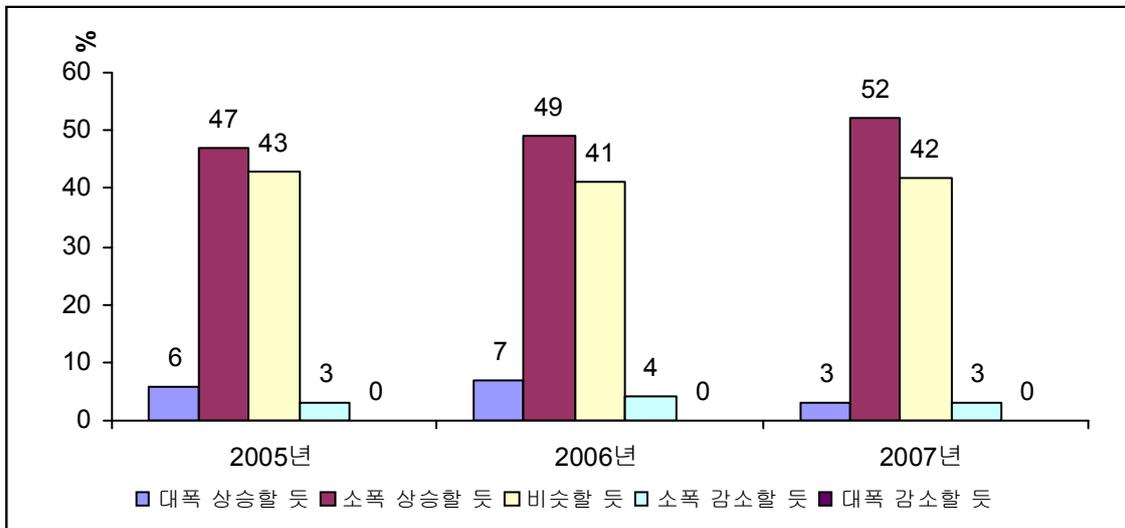
### 3. 3대 도시 주민의 투자 및 저축 성향

□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시민이 2008년 소득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나, 투자성향에 있어

서는 차이를 보임.

- 전체적으로 55%의 응답자가 2008년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, 특히 베이징의 경우 그 비율이 64%로 상하이(49%)와 광저우(44%)보다 높았음.
-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.

<그림 2> 중국 3대 도시 주민의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정도



□ “만일 10만 위안의 보너스를 받는다면,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”라는 질문에 대해 전액 혹은 대부분을 투자하겠다는 시민이 48%, 저축하겠다는 시민이 38%, 소비하겠다는 시민이 15%를 차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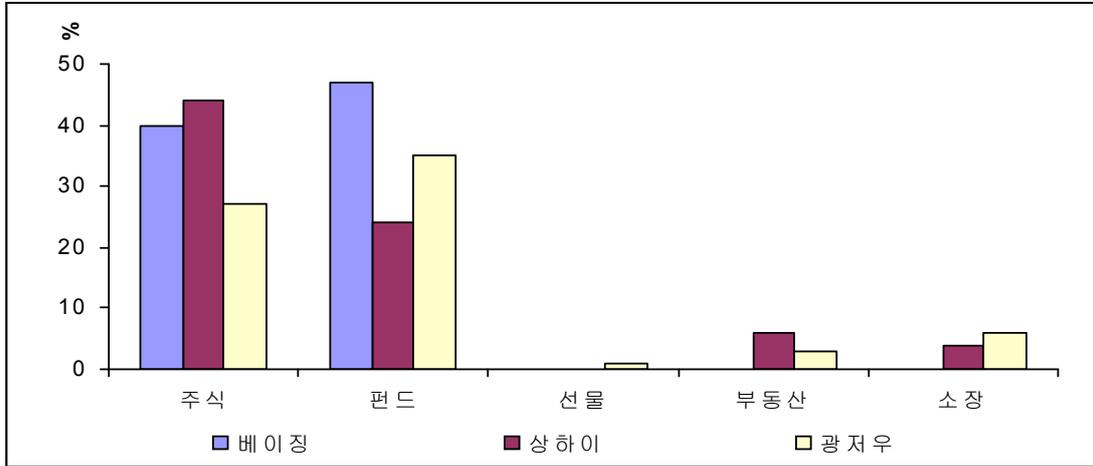
-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9% 포인트 하락한 반면, 저축과 소비를 선택한 응답자는 전년대비 각각 2% 포인트, 7% 포인트 증가함.

□ 2008년 투자방식에 대한 조사에서 3대 도시 주민 모두 주식과 펀드 투자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투자 성향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냄.

- 베이징과 상하이 시민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40%와 44%인 반면, 광저우 시민의 27%만

이 주식투자를 선호하였고 35%가 펀드투자를 선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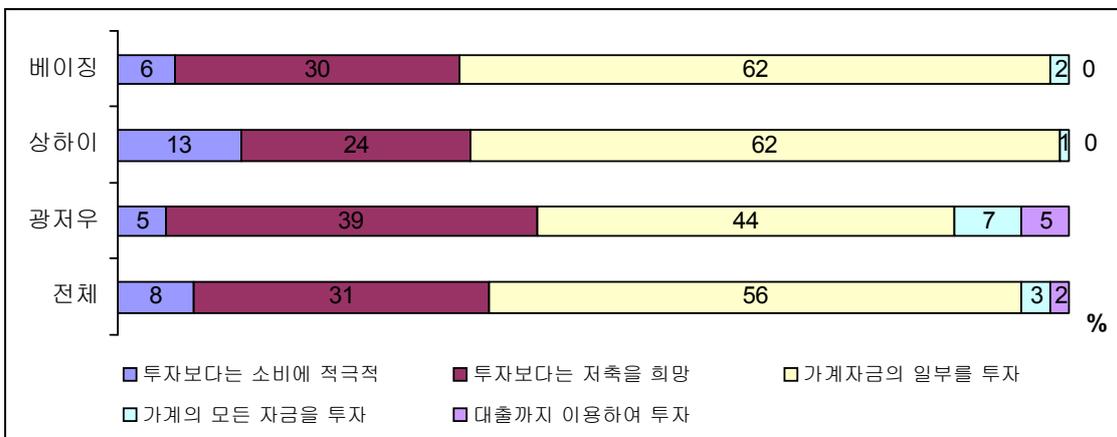
<그림 3>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 시민의 2008년 투자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



- 상하이, 베이징 시민의 투자 의지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두 지역 모두 62%의 응답자가 “지속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갖고, 가계소득의 일정 자금을 투자에 사용할 것”이라고 답함. 이는 광저우 지역에 비해 18% 포인트가 높은 수치임.

- 투자리스크 문제에 있어서 베이징, 상하이 시민이 상대적으로 더욱 신중하여 “가계의 모든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까지 이용하여 투자하겠다”는 응답자는 각각 2%, 1%에 그침.

<그림 4> 2007년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 시민의 투자에 대한 의식과 태도



- 이에 비해 광저우의 경우에는 “가계의 모든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까지 이용하여 투자하겠다”는 응답자가 12%에 달한 반면, “투자보다는 저축을 할 것”이라는 시민이 39%에 달해 베이징과 상하이보다 각각 9% 포인트, 15% 포인트 높았음.

#### 4. 2008년 소비경향에 대한 전망

- 중국 3대 도시 주민은 식료품, 교육·문화, 의료·보험 관련 지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,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.
  - 2008년 3대 도시 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소비항목은 식료품(58%), 교육·문화(48%), 의료·보험(34%)인 것으로 나타남.
  - 식료품 중에서는 곡물과 식용유 가격에, 교육문화오락 및 관련서비스 중에서는 교육비에, 의료보험 중에서는 의료비와 약품비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임.
  - 또한 문화교육 관련 소비에 대한 중시와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육비 문제가 여전히 시민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소비항목인 것으로 나타남.
- 전체 응답자의 55%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함.
  - 가계 저축의 주된 목적이 노후대비라고 답한 시민이 전체의 31%로 가장 많았고, 자녀의 향후 교육비 마련은 23%, 주택구매와 인테리어는 21%로 나타남.
  -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양로, 의료, 교육 등과 관련된 미래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3대 지역 주민의 현재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일부 가계는 소비를 저축으로 전환하였음.

## <참고 자료>

《中国经营报》, “物价上涨 消费转向”, 2008.2.4

《广州日报》, “京沪穗三地近半市民08年仍将投资股市”, 2008.1.7

(자료 정리: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박사과정 정지현)